

제 1회 경계를 넘어서 제 2회 지구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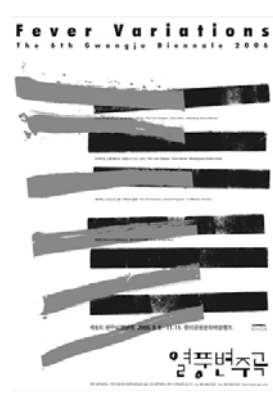
제 3회 人+間



제 4회 멈-춤



제 5회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제 6회 열풍 변주곡



제 7회 연례보고



제 8회 만인보



제 9회 라운드 테이블

광주비엔날레 20년 ... '광주 정신' 경계를 넘어 예술로 꽃피다

민주 시민 정신은 비엔날레의 모태이자 근간 광주의 눈으로 현대미술 조명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광주비엔날레 선언문 중)

1995년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첫 행사를 치른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20년을 맞았다. 성년이 된 광주비엔날레는 태동의 모태가 된 광주정신의 진정한 의미와 현 세대를 반영하는 광주정신이 무엇인지를 찾는 특별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만큼 광주정신은 광주비엔날레의 근간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열렸던 광주비엔날레에 담긴 ‘광주정신’을 살펴본다.

◇제1회 ‘경계를 넘어서’(1995년)=첫 행사는 세계미술사적 맥락에서 광주정신의 유산을 진단하는 계기였다.

‘광주 5월 정신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5·18이 끼친 사회예술적 의미를 가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80년대 예술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냈던 작가와 2세대 작가들이 모여 신·구 세대 작가들이 생각하는 5·18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였다. 80년 5월 당시를 접했던 일본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 등 3개국 33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증인으로서의 예술전’은 민주와 평화, 투쟁 등의 주제를 국제적 시각으로 조명해보는 전시였다. 피카소, 사할, 뒤상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제2회 ‘지구의 여백’(1997년)=주제인 지구의 여백은 생명존중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오늘날 지구촌이 처한 현실과 광주정신의 근간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는 평가다. 특히 행사 준비년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광주비엔날레가 서구 중심의 시각과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주성지 광주의 정신을 재인식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청년정신전’은 지역문화의 근간인 남도성과 광주정신이 통하는 지점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또 ‘도시의 꿈 :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술인, 지지체 등 시민 역량을 결집했으며, 특별전 ‘일상, 기억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광주정신을 미학적



으로 구현하고자 시도했다.

◇제3회 ‘人+間’(2000년)=5·18 광주민주화운동이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일본의 대표적 인권 관련 기획자인 하리우 이치로 큐레이터가 5·18 20주년을 맞아 ‘예술과 인권전’을 기획했다. 강연, 강요배, 오윤, 신학철, 김영수 등 민중미술 작가들과 외국 작가 등이 전쟁, 민족차별 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전시했다.

중의 공인 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5·18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상처를 다룬 영상 설치 작품, 시민 참여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 ‘상처’가 진행됐다.

◇제4회 ‘멈-춤’(2002년)=멈춤이라는 주제로 발전, 진보, 성취를 추구하는 현대에 대해 반성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정신이 가진 인류사적 의미를

진단했다. 성완경 예술감독은 그동안 시민들도 알지 못했던 5·18 자유공원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광주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장소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18 자유공원은 80년 당시 상무대 헌병대, 별정 등이 있던 자리다. 성 감독은 특히 공간이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장소가 아닌 현재까지 살아있는 장소로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제5회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2004년)=‘5·18 정신이 당대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행사였다. 5·18 세대들이 아닌 이후 세대들이 ‘현장3-그 밖의 어떤 것들’전을 꾸렸다. 민주화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 있는 소외된 지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

서 기획된 전시였다. ‘광주리포트전’, ‘상무대 혹은 5·18자유공원’ 등 두 파트로 이루어진 전시와 함께, ‘불로동 연가’, ‘등꽃제 피포먼스’ 등 퍼포먼스 프로그램, 세미나가 열렸다. 광주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장소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행사였다.

◇제6회 ‘열풍 변주곡’(2006년)=아시아를 변화시키는 힘이 광주정신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행사였다. 광주정신이라는 뜨거운 바람이 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끌어 내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보여줬다. 또 광주정신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해석하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 미술포럼 : 아시아

◀ 잊기위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가 지난 1995년 열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크초&알렉시스 레이바의 작품 ‘잊어 버리기 위하여’를 관람하고 있다.

◀ 망망대해

지난 2012년 제9회 광주비엔날레 때 무각사에 전시된 볼프강 라이프의 ‘망망대해’ 앞에서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과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상무대 영창·양동시장 등 오월 광주의 역사 스민 장소 자체가 작품이고 전시 공간

의 눈으로 본 세계미술’을 통해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비엔날레 안팎의 담론과 실천적 의제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제7회 ‘연례보고’(2008년)=프랑스 큐레이터 클레어 탄코스에 의해 기획된 거리행렬 프로젝트 ‘봄’은 광주비엔날레의 모태인 광주정신과 역사적 맥락을 같이했다. 프로젝트 ‘봄’은 5·18로 상징되는 도시 광주가 지닌 특성에 따라 대중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와 협동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카니발 형식의 축제행렬을 준비하고, 이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전시장에 상영하는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또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은 ‘글로벌 인스티튜트’를 통해 전시와 함께 학술적 성과 및 담론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했다.

◇제8회 ‘만인보’(2010년)=양동시장 특별프로젝트를 선보여 지역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상인과 일반시민들에게 비엔날레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만인의 삶’에 대한 전시구성 폭을 확장시켰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개최지 광주의 지역적 배경과 현재를 광주정신으로 함축한 전시 개념을 작품 구성 속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다. 대표적으로 5·18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산아 이베코 비츠의 ‘바리케이드 위에서는’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새로운 형식의 살아있는 기념비였다는 평가다.

◇제9회 ‘라운드 테이블’(2012년)=6명의 공동 예술감독이 6개의 소주제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 소주제들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경유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특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연결된 의역의 관계성 속에서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진 도시로서의 광주를 읽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레지던시와 신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광주에 머물면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작업을 통해 광주의 역사를 드러내거나 광주와 다른 곳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디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판매나루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담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웅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초곡리 2차선 돌비 배 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병충충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재 관

금히구합니다

- 1)빌딩 : 현금8억,15억,30억 손님 각각 대가중 바로 계약해드립니다
- 2)상가 주택 : 현금2억보유3명, 현금5억보유7명대기하고있습니다
- 3)점포 : 부패식당1명,갈비집3명,중화요리2명, 패션의1명, 노래방2명등 많은분들이 대기중입니다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 해 보세요!)
D+M 즐거운부동산세상
급매부동산,개발정책,생활법률,취득양도관련 세금유형의료전문가들의 강좌등 다양해요

[급 매]

- 1)충장로 원룸대165㎡ 급매2억7,000(보증1억 월510)월14%대 수익
- 2)롯데백화점인근 모텔 대236㎡건185㎡ 25 급매1억원건축비(도안)매
- 3)예술의 거리 입구 대188.4㎡ 4층 건물 매2억9천6천5천 4억4천

이밖에도 많아요 = 맞춤 서비스합니다

[급 임대]

- 1)식당1층33㎡ /66㎡/120㎡ 등(최고요지)급매를 확보중
- 2)다용도및사무실 대로변1층,지하,3층,10층등 평수별,금액별 좋은 매물 다량보유중입니다
- 3)원룸,투룸 = 즉입,싸고,깔끔한 매물 다량 보유

부동산이러면 지역,종류,금액 상관 없이 무엇이든지 연락주세요 7일내에 [가부명시] 처리하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부지되세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 / 직통062)229-0088

년6억 收益

모델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른,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찰,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